

히스패닉 사회의 이해

넷째마당
멕시코

담당교수: 이재학

멕시코와 미국

- 1813년 독립
- 미국의 간섭 => 1823년 토머스 제퍼슨, 제임스 먼로에게 서한 보냄 =>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자치능력 없다고 역설 =>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야욕
- 1836년 3월 Texas의 독립 => Santa Ana 텍사스로 진격, Alamo 전투에서 승리, 전쟁에서의 패배 => 1845년 미국의 텍사스 합병
-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포함함 남서부 지역 매각 요구 => 1846년 4월 26일 전쟁발발 => 1848년 2월 "과달루페 이달고 조약(Treaty of Guadalupe-Hidalgo)" 체결 => 텍사스, 캘리포니아, 뉴멕시코, 아리조나, 네바다, 유타, 콜로라도 1500만달러에 이양 => 영토의 절반 상실(Río Grande 강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으로 정함).
- Gringo(미군 Green색 유니폼 착용 + Go)
- 1848년 12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발견, Gold Rush
- 텍사스에서의 석유발견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시련과 독재

- 나폴레옹 3세의 멕시코 침공(인도차이나 점령, 미국 남부군과 연합=> 멕시코에 대농장 건설 구상=> 남북전쟁에서 북부군 승리로 계획 무산)

- => 1862년 1월 3일 프랑스군 Vera Cruz 상륙

- => 멕시코군의 Puebla 전투승리=> 전쟁에는 패배

- (후아레스의 자유당과 보수당의 대립, 보수당과 프랑스 결탁)

- =>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Maximiliano 황제 등극
(Carlota)

- (막시밀리아노 자유주의적 이상, 후아레스의 이념에 동조

- => 자신을 영입한 보수당과 마찰)

- => 나폴레옹 3세 실각, 1867년 Maximiliano 황제처형

- => 인디오 Benito Juárez 대통령 취임 (사포테카 인디오, 변호사)

- => 1876년 Porfirio Díaz 독재정권 시작

시련과 독재

- Díaz 대통령의 35년 집권 => 강압에 의한 정치안정과 성공적인 외자유치, 경제발전 이룩함(전문관료의 고용)
 - => 이후 많은 제 3세계 개발독재국가들의 모델이 됨
 - => 부의 분배에 실패 (한국 개발독재정권과의 비교)
-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개발독재에 대한 반발로 사회주의 정권 들어서는 경우가 많음
 - => 빈익빈 부익부 더욱 커지는 모순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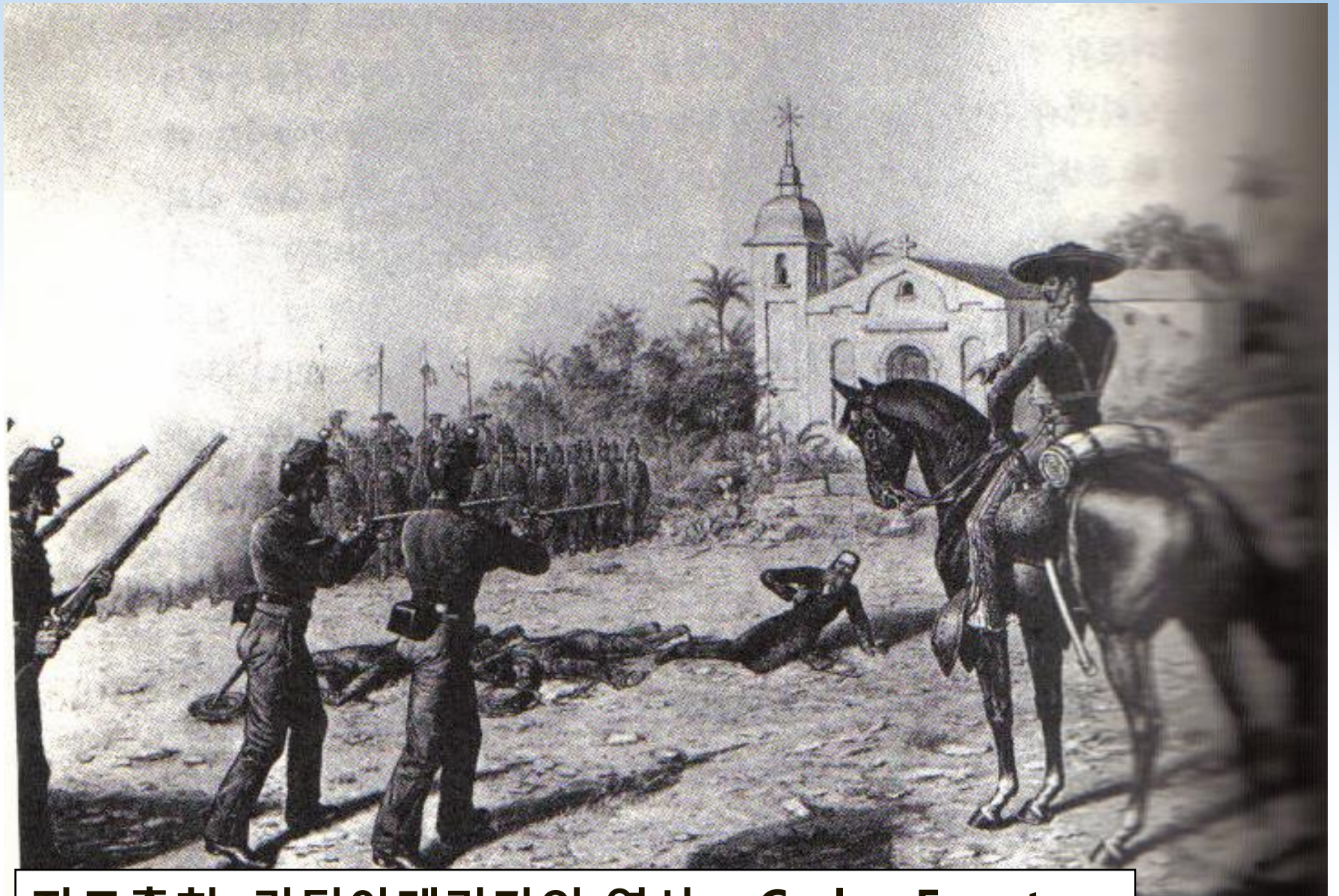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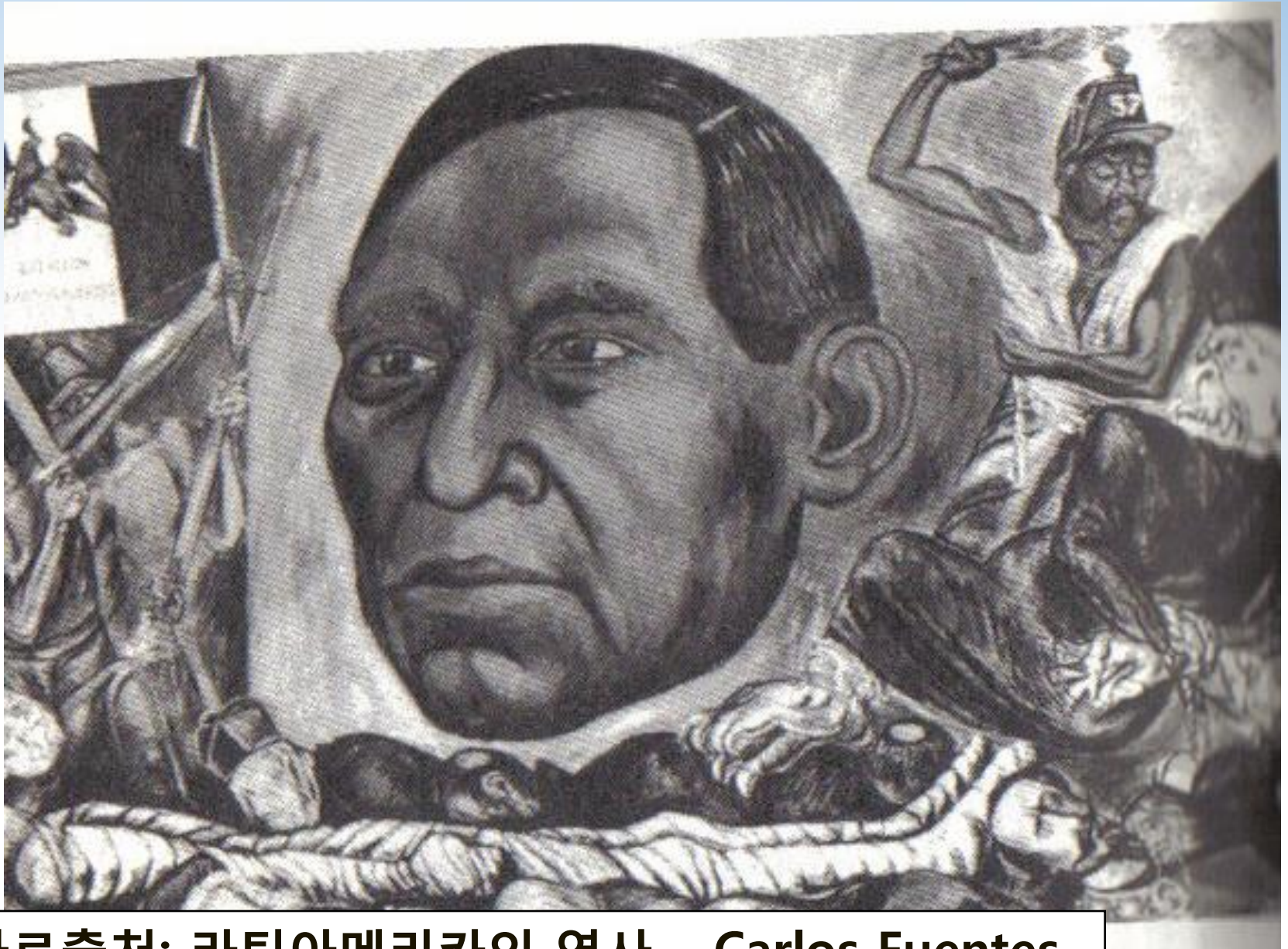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담당교수: 이재학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담당교수: 이재학

멕시코 혁명

- 1910년 멕시코 혁명 발발
- 제1기

-마데로, 디아즈 대통령 재선 반대 및 인디오에게서 몰수한 토지를 돌려줄 것 요구=> 혁명발발=> 1911년 디아스의 미국 망명 및 마데로의 대통령 취임 => 아스떼까 제국과 스페인 부왕령 시대부터 내려 온 전제주의적 전통을 타파한 민주주의체제 도입하려 함=> 언론자유 확립, 의회에 행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독립권한 부여, 시민들의 정당 결성 허용=> 불만의 근본원인은 무시=> 오래된 관료제도, 아시엔다는 전혀 개혁하려 하지 않음 (마데로- 지주출신 변호사)

-1913년 우에르타 장군에 의한 대통령 암살, 대통령 취임

멕시코 혁명

• 제2기

-혁명군과 연방정부군의 대립

-혁명군의 삼분화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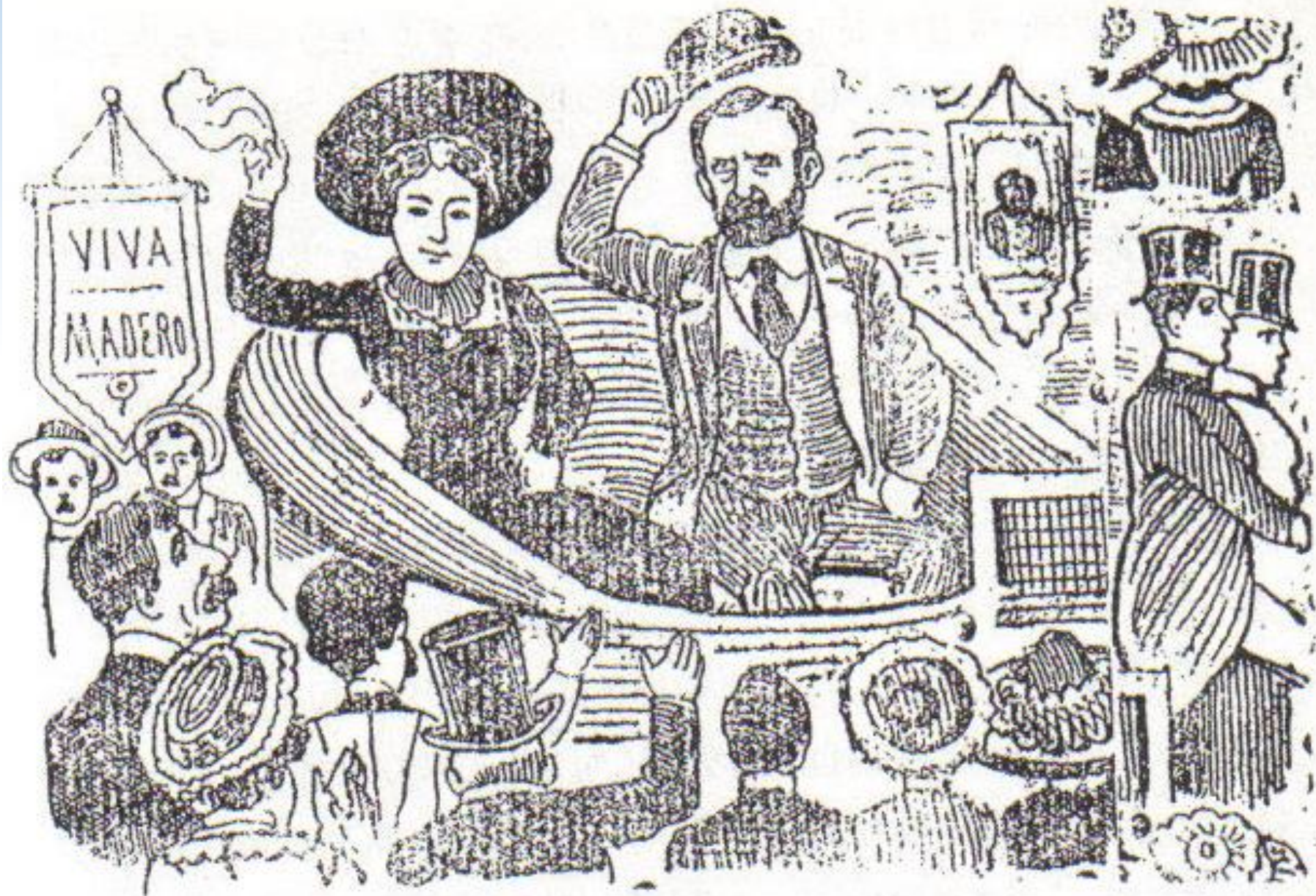
1. 헌정수호파(까란사- 지방의 상류층 대표=> 디아스 정권시 소외 받았던 지방의 이익집단 대변- 비야의 위협 대항하기 위해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에게 지원 요청)

2. 북부군(Pancho Villa, 비적 출신), 아시엔다 탈취, 대지주 및 대금업자 숙청, 미국 뉴멕시코 침공

3. 남부군(Emiliano Zapata, 농민중심)- 사파티즘(Zapatismo)- 농촌 공동체, 자치경찰, 자치의회-국가체계와 충돌 (= > 1994년 1월 1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서 농민혁명 발생=> Zapatista)

-1917년 우에르따 대통령 축출, 혁명성공

=> 미국의 개입노력(1차대전 후 100만 명의 군인과 무기 확보)=> 1914년 Vera Cruz 점령, 1916년 판조 비야군 공격계획, 미국기업의 멕시코 합병계획=> 모두 실패로 끝남, 멕시코 분단 피함.



“프란시스코 마데로의 멕시코 도착”, 판화, 포사다 작, 1911년경.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- 제3기

- 혁명군간의 내분 발생

- 판초 비야 및 사파타 암살

- 까란사와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이 이끄는 헌정수호파의 집권

- 사파타=> 오늘날의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농민 혁명군이 맥을 이음 => Zapatista 민족행방군

- 1929년 멕시코 제도혁명당 (Partido de la Revolución Institucional) 창당 (철저한 6년 단임제) => 2000년까지 집권 (71년)=> 2000.12. 71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인 국민행동당 (PAN)의 폭스 대통령 취임

- => 폭스정권, 치안불안, 고실업 등으로 국민 대부분이 71년만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,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 => 멕시코 연방 최고선거재판소, 2006년 9월 5일 집권 국민행동당(PAN) 펠리페 칼데론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 (멕시코 좌파인 민주혁명당[PRD] 후보에게 1%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)

- PAN의 칼데론 대통령 '마약과의 전쟁'
선포, 군 동원 소탕작전 벌임 (미국의 지원)
=> 마약소탕 위한 군사작전으로 전 국토의
전쟁터화
=> 극심한 사회불안, 치안부재 초래
(군인과 경찰 3000명을 포함,
5만5000명 이상이 사망, 1만명 가량 실종)
- 멕시코에서 거래되는 마약규모는 연간 494억달러
(약56조원)
- 멕시코 마약조직은 미국 마약공급의 90% 장악
(이전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장악)

- 멕시코 국민들의 염증
- 2012년 7월 1일 멕시코 대선
- 6년간 벌여온 '마약과의 전쟁'에 대한 심판
- 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후보 당선
- '서민경제 회복' 공약으로 12년만의 재집권 성공, 마약 차단하는 노력 대신 길거리 범죄 줄이겠다고 공언
- 멕시코 국민,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선택
- 미국 정부의 우려 (6년간 칼데론 정부에 16억 달러 지원)

멕시코 혁명의 결과

- 혁명정부

 - => 가톨릭 교회의 토지 몰수, 교회와 정치의 분리

 - => 바티칸과의 70여 년에 걸친 외교적 단절,
라틴아메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톨릭에
대한 정부의 제도적 탄압

-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인디오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

- 백인의 국가가 아닌 메스티조의 국가로 정체성 확립하려 함

 - => 실제로는 실패

- 외형적인 반미정권의 연속, 국민들의 외형적 반미 감정

- => 멕시코 경제의 과다한 미국의존(75% 이상)

- => 끊임없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 (mojados)

- 미국의 끊임없는 정치에의 개입

- => 미국의 방패막 역할

- => 국방예산에 돈을 거의 쓰지 않음
(GNP의 0.5%)

- => 군의 영향력 미미

- => 군의 정치개입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함

멕시코 혁명과 문화혁명

- 멕시코 혁명을 통해 멕시코인들 고립의 벽을 허물- 북부와 남부의 만남
- 처음으로 외부세계에 스페인계 아메리카가 아닌 멕시코인으로서의 자기 모습 드러냄- 어떤 때는 잔인하고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움 모습을 보여 줌
- 1914년 사파타의 군대 멕시코 시티 입성- 디아스 추종자의 귀족 관 점령- 타인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 처음으로 바람 봄- 거울에 비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가면을 벗고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냄- 마을을 떠나 기차로 또는 어떤 때는 걸어서 남편을 따라 걸던 여자의 얼굴, 게릴라 병사의 무서운 얼굴, 전쟁 중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아이의 얼굴=> 인디오, 스페인과 메스티소, 가톨릭과 자유주의, 전통과 새로움, 인내와 반항을 조화시킨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한 '완전한 시민'의 모습 투영=> 새로운 스페인계 아메리카 사회 탄생의 예고

멕시코 경제 상황과 한국

- 멕시코 인구 1억명, GDP 7,500억불(세계 12위)
- 25세 이하 젊은층이 55%에 달함, 내수시장의 지속적 확대
- 미국과 NAFTA 체결로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매우 우수
- 멕시코 전체수출의 89%, 수입의 62%를 미국이 차지
=> 과도한 대미 의존도
- 1995년 페소화 위기 이후 2009년 최악의 침체(-6.5% 성장)=> 2010년 4% 성장률
- 전체 인구의 10%가 하루 1\$ 미만으로 생활
- 상위 10%가 전체소득의 43.1% 차지
- 좌우파, 빈부간, 이념간 대립이 국정운영에 부담
-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에 대해 고수입관세를 부가, 한국의 주력수출품(자동차 등)의 경쟁력 약화 초래
- 북부 공업지대의 maquiladora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

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창이 닫힙니다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자료출처: blog.naver.com/travelfeel

blog.naver.com/travelfeel



자료출처: blog.naver.com/travelfeel

blog.naver.com/travelfeel



자료출처: <http://coursesite.uhcl.edu>



자료출처: Self Portrait (Frida Kahlo, 1932)



자료출처: The Two Fridas (Frida Kahlo, 1939)